

보도설명자료 (‘19. 1.3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산업간 중복성이
발생하지 않도록 차별화하여 선정하였음

(한국경제 1.30일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지역별로 기구축된 인프라의 특성을 반영하고, 산업간 중복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화하여 선정하였음
- ◇ 1월 30일 한국경제 <지역별로 이름만 바꾼 ‘닭은꼴’ 수도권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보도내용

- 「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」 사업에서 선정한 산업이 시도별로 유사하여 지역별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

2. 同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「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」은 전국에 55개 산업거점을 선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장비 확충, 혁신기관·장비간 연계 강화, 기술지원 등 혁신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,

- 산업 선정은 스마트특성화 전략을 기반으로 시·도 협의를 통해 ① 지역수요, ②경쟁우위, ③국가전략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복을 제거하고 선정

- 지역별 특화산업의 이름만 확인했을 때 유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, 실제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선정되었음

* 예시 : 자율주행차 관련 상호 차별성

시도	산업	세부내용(특성화 내용)
경북	도심형 자율주행부품	자율주행 트램 부품 분야
전북	자율주행 상업용 수송기기	상용차, 중장비, 선박 등 상업용 수송기기 분야
대구	전기자율차	전기자율차 전기동력 부품·모듈
세종	자율주행차 실증	도로·교통 기반을 활용한 실증기반 구축

- 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이경호 과장(044-203-4410)
이희동 사무관(044-203-4241)